



- 노랫말의 뜻을 생각하며 노래 부를 수 있다.
- 성부의 어울림을 느끼며 부분 2부 합창을 할 수 있다.

Moderato

mp C

이병기 작사
이수인 작곡

자연스럽게 호흡하며 곡의 흐름을
살려 노래 부른다.

바람이 서늘도 하여 뜰앞에 나 - 섰 더 니

서 산 - 머 리에 하 늘은 구름을 벗 어 나 고

산 뜻한 초사흘 달 이 별 함 께 나 - 오 더 라

달 은 녀 머 어 가 고 별 만 서로 반 짝 인 다

저 별 은 뉘 별 이 며 내 별 또 어 느 게 요

잠 자 코 흘 - 로 서 서 별 을 헤 어 보 노 - 라

● 이 곡은 밤하늘의 반짝이는 별을 노래하는 노랫말과 맑고 깨끗한 가락이 서정적으로 어우러지는 곡이다.